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유형*

Increasing Sense of Self-Control over Pregnancy: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Pregnant Women's

김 갑 선(Kapsoon Kim)**

< 목 차 >

I. 서론	III. 연구결과
1. 연구 필요성	1.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2. 연구 목적	2.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3.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유형
II. 연구 방법	IV. 논의
1. 연구 설계	1.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유형 논의
2. 연구 참여자	2.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논의
3. 윤리적 고려	3. 선행 정보추구 모형과의 비교 분석
4. 자료수집 및 면담과정	4. 임신부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
5. 자료 분석 방법	5. 연구 의의
6. 연구평가	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임신부들이 경험하는 정보추구의 독특함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정보추구의 실제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론적 표집에 의하여 산전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16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하였다. 임신기의 정보추구의 맥락, 구조, 과정의 분석 결과,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을 통합하는 핵심범주는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로 도출하였다. 즉, 임신의 과정동안 임신부들의 의도적이고 일상적인 정보추구행위는 함축적이고 합리적으로 임신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의 경험 유형은 '필사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 '체념적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특징 및 선행 정보추구 모형과의 비교 및 임신부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논하였다.

키워드: 임신, 임신부, 정보추구, 정보추구 유형, 질적 연구, 근거이론, 실제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substantive theory that described and explained how pregnant women are seeking information in context of pregnancy. A qualitative design based on the method of grounded theory was utiliz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pregnant women,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who receiving antenatal care 3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The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and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Increasing Sense of Self-Control over Pregnancy' was the core category for describing and guiding the process of seeking information during the pregnancy. To construct a theory of 'Increasing Sense of Self-Control over Pregnancy' in this study, eight hypothetical statement were generated from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re category and the other categories, thus four patterns were derived as follows: 'Desperately Seeking', 'Actively Seeking', 'Unconcernedly Seeking', 'Resignedly Seek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LIS theory in Korea, theory development of information behavior, education for LIS, and information service practice.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vided.

Keywords: Pregnancy, Pregnant women, Information seeking pattern,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Substantive theory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의 일부 축약본.

** 성균관대학교 강사 (kapskim@dreamwiz.com)

• 논문접수: 2013년 8월 15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6일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임신은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대체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임신은 여성 개인의 일차적인 생리적 변화 이외에도 임신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할 수용을 필요로 하는 등 사회적·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유발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전환과정으로 여성의 삶에서 경험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사 사건의 하나이다. 그러함에도 임신부의 정보 추구 맥락에서 임신이라는 40주 동안의 생경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정보란 과연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기여를 하며, 임신부들에게 정보추구란 어떠한 경험이며, 이들의 정보추구 행위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접근은 극히 희박하다.¹⁾

따라서 임신부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이해증진과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임신의 고유 맥락을 반영한 임신부의 정보추구 맥락, 구조 및 과정의 총체적인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신부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보추구에 관한 독특함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정보추구의 실제이론을 개발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이해증진과 정보추구의 지식개발에 기여하고,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 이론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ELIS)연구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추구에 관한 이해와 유용한 지식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단계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 추구에 관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이해는 건강정보의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의 선호에만 그 연구 관심이 국한되어져 왔기에 건강정보추구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그 심층적 이해는 현재까지도 불충분한 단계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건강정보의 추구는 아직 논의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²⁾.

따라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정보추구를 문헌정보학 연구와 실무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헌정보학의 지식개발에서도 건강정보추구 경험과 그 요구를 밝히는데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추구자의 관점과 경험에서 정보추구의 유발 원인, 맥락, 정보추구의 전략, 정보추구에 따른 결과 등 정보추구의 관련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추구의 과정과 정보추구 행위의 유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추구의 이론들을 제안하여 정보추구에 대한 다층면적이고

1)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과정," 질적연구, 제7권, 2호(2006. 12), p.27.

2)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1호(2006. 03), p.14.

심층적인 이해 증진과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보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신이라는 보편적인 생활사 사건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일상적 임신의 맥락에서 정보추구의 유발원인, 맥락, 정보추구의 전략과 정보추구에 따른 결과 등 정보추구와 관련된 일련의 개념들과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밝힌 선행연구결과³⁾⁴⁾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정보추구 과정과 정보추구행위의 유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실체에 기반한 중범위이론인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무엇인가. 둘째,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의 유형은 어떠한가 이다.

3. 임신부의 정보추구

사람들의 건강정보추구는 건강의 위기 지각에서 유발되며, 일상적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되고 있다. 건강관련 정보추구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간호학, 보건학 또는 문헌정보학에서 수행되어왔다. 건강정보추구의 연구경향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또는 특정 질병에 관한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의 선호를 조사하거나, 혹은 특정 질환자의 특정 질병의 정보 획득원이나 정보채널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에서의 건강정보는 주로 일반 대중매체나 구두채널에 의해 획득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이 강력한 건강정보원으로 등장하는 추세이다.

임신은 대부분 정상 생리과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지만, 임신기는 신체적으로 태아의 성장과 모체의 적응 때문에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부모 됨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는 역할의 과도기이며, 성숙적 위기 상황이 된다.⁵⁾ 임신의 1기 동안은 불신과 양가감정이 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아기를 실제로 느끼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임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 자기 분석적, 수동적이 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유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임신의 2기에는 첫 태동을 경험하며, 아가가 하나의 분리된 개체라는 생각에 흥분감을 느낀다. 임부는 자기분석적이 되며 자신의 삶과 아가의 장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 신체상의 현저한 변화에 대해 자부심이나 당혹감, 걱정을 하게 된다.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3) 상계논문, pp.13-37.

4) 김갑선, 전계논문, pp. 27-40.

5) 김신정 등, 모성간호학(서울 : 정담, 1996), p.278.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임신의 3기에는 임신에 대한 자부심과 불만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신체불편감이 증가하고 임신종결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⁶⁾

이러한 임신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하는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관련연구는 문헌정보학과 보건 및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부들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임신부의 정보추구 관련 맥락, 구조와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접근은 거의 없다.

Davies & Bath 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아 임신여성의 모성정보에 관한 대인정보원을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구두정보도 선호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공식정보원과 비공식 정보원의 평가 준거는 다르며,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질문하기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는 비공식정보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다⁷⁾. Mckenzie는 쌍생아를 가진 캐나다 임신여성들의 정보추구를 구성주의 담론분석으로 연구하여 정보추구 실제의 이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정보추구에는 ‘활발하게 추구하기’, ‘활발하게 스캐닝하기’, ‘비의도적 모니터링하기’, ‘대리탐색’이라는 4가지 탐색모드가 있으며, 이들 탐색모드는 ‘연결하기’와 ‘상호작용하기’의 이원적 국면을 각기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모형은 특히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신의 고유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임신 맥락적 모형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보추구의 한 모형으로도 볼 수 있다.⁸⁾

김갑선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 관련 요인으로 ‘임신의 수용’, ‘지각된 불안’, ‘궁금증’,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정보획득방법 인지’,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자아조절’, ‘정보접근환경’,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임신·출산의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 ‘충족’, ‘불충족’을 제시하였다.⁹⁾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 과정으로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를 도출하였다.¹⁰⁾

간호학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연구로서, Corbin은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미국의 임신부들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근거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임신부들의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위기관리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는 ‘보호적 지배하기’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질병의 진행수준과 위기수준의 4가지 맥락에 따라 ‘사정하기’, ‘균형 잡기’, ‘통제

6) 상계서, pp.286-287.

7) Myfanwy M. Davies and Peter A. Bath, "Interpersonal Sources of Health and Maternity Information for Somali Women Living in The UK,"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8, No.3(2002), pp302-318.

8) Pamela J. Mckenzie,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9, No.1(2003), pp.19-40.

9)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전계논문.

10)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과정," 전계논문.

하기'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¹⁾ Levy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영국의 임신 부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임신부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정보조절하기', '맥락화하기', '행동하기'의 과정을 통한 '균형감 유지하기'로 밝혀졌다.¹²⁾

최근의 보건 및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임신 여성의 정보추구 연구의 경향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 관련 정보¹³⁾¹⁴⁾¹⁵⁾ 운동 정보¹⁶⁾ 등 임신기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정보의 추구에서 선호하는 정보원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우간다의 10대 임신 여성,¹⁷⁾ 미국의 저임금 임신 여성¹⁸⁾ 등 다양한 집단의 임신 여성들이 임신기에 따라 추구하는 정보의 주제 및 선호하는 정보원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임신에 관한 보편적 정보원으로서 인터넷 활용¹⁹⁾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스웨덴²⁰⁾과 중국²¹⁾의 임신여성들이 인터넷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주제 및 획득된 정보의 진실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넷째, 건강문해(health literacy)와 정보추구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의 20대 저임금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²²⁾²³⁾ 및 후속연구에서 임신기

-
- 11) Juliet. M. Corbin, "Women's Perceptions and Management of a Pregnancy Complicated by Chronic Illness," *Health Care of Women International*, Vol.8(1987), pp.317-337.
 - 12) Valerie Levy, "Maintaining Equilibrium: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Processes Involved when Women Make Informed Choices During Pregnancy," *Midwifery*, Vol.15(1999), pp.109-119.
 - 13) E. M. Szwajcer et al., "Nutrition-Related Information-Seeking Behaviours Before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Pregnancy: Consequences for Nutrition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Vol.59, Suppl. 1(2005), pp.S57 - S65.
 - 14) Ellen M Szwajcera et al., "Nutrition-Related Information-Seeking Behaviours of Women Trying to Conceive and Pregnant Women: Evidence for the Life Course Perspective," *Family Practice*, Vol.25, Suppl.1(2008), pp.i99-i104.
 - 15) Lisa Garnweidner, Kjell Sverre Pettersen and Annhild Mosdol, "Experiences With Nutrition-Related Information During Antenatal Care of Pregnant Women of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Residing in the Area of Oslo, Norway," *Midwifery*, in Press(2013).
 - 16) Penny E Clarke and Harriet Gross, "Women's Behaviour, Beliefs and Information Sources about Physical Exercise in Pregnancy," *Midwifery*, Vol.20, No.2(June 2004), pp.133-141.
 - 17) Lynn Atuyambea et al., "Seeking Safety and Empathy: Adolescent Health Seeking Behavior During Pregnancy and Early Motherhood in Central Uganda,"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No.4(August 2009), pp.781 - 796.
 - 18) Lynne Porter Lewallen, "Healthy Behaviors and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Among Low-Income Pregnant Women," *Public Health Nursing*, vol.21, No.3(May/June 2004), pp.200-206.
 - 19) Briega Lagan, Marlene Sinclair and W. George Kernohan, "Pregnant Women's Use of the Internet: a Review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Evidence," *Evidence Based Midwifery*, Vol.4, No.1(2006), pp.17-23.
 - 20) Margareta Larsson, et al., "A Descriptive Study of the Use of the Internet by Women Seeking Pregnancy-Related Information," *Midwifery*, Vol.25, No.1(Feb. 2009), pp.14-20.
 - 21) Ling-ling Gao, Margareta Larsson and Shu-yuan Luo, "Internet Use by Chinese Women Seeking Pregnancy-Related Information," *Midwifery*, Vol.29, No.7(July 2013), pp.730-735.
 - 22) Carol Shieh, Anna McDaniel and Irene Ke, "Information - Seeking and its Predictors in Low-Income Pregnant Women,"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Vol.54, No.5(Sept.-Oct. 2009), pp.364-372.
 - 23) Carol Shieh, et al., "Health Literacy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and With Barriers to Information Seeking in Clinic-Based Pregnant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30, No.11 (2009), pp.971-988.

동안 건강정보추구는 건강문해와는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추구는 임신부들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 효능감과 태아건강에 관한 내부적 통제위(locus of control)와 유의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⁴⁾ 또한, 건강 신념의 통제위가 건강 정보원을 선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⁵⁾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근거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태, 특히 인간행위자의 관점에서 인간행위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해결 노력을 설명하고자 하는데²⁶⁾에 관심을 갖는 간호학, 공중보건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경영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근거이론²⁷⁾²⁸⁾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론개발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란 질적자료의 단순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그 해석(interpretation)에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적 표집에 의하여 자료 포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지속적인 비교법에 의해 각 개념들로 분해하고(개방코딩), 이들 개념들의 제 연관성을 밝혀 재조합하고(축코딩), 통합하는(선택코딩)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코딩과정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구현상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밝히고, 그 개념간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론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근거이론은 특정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과 개념간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구명(究明)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고,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을 탐구하고 임신부의 정보추구과정과 그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이 성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24) Carol Shieh, Marion E. Broome and Timothy E. Stump,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Information-Seeking in Low-Income Pregnant Women," *Women & Health*, Vol.50, No.5(2010), pp.426-442.

25) Lauren S. Aaronson, S. Carol Macnee Mural, Susan K. Pfoutz, "Seeking Information: Where Do Pregnant Women Go?,"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15, No.3(Sept. 1988), pp.335-345.

26) Brian Haig, *Grounded Theory as Scientific Method*, *Philosophy of Education*, 1995.
<http://www.ed.uiuc.edu/EPS/PES-Yearbook/95_docs/haig.html> [cited 2002, 10, 2].

27) Anselm Strauss and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London : Sage, 1990).

28) Anselm Strauss and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Newbury Park, Calif. : Sage, 1998).

2.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형성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집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의 3개 종합병원(S,C,Y)에 산전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임신부들 중에서, 임신 24주 이상의 통상적인 초임부 및 16주 이상의 경임부(經妊婦)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임신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초임부의 임신주수를 24주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초임부들이 6개월 정도의 임신진행 경험을 갖추어야 자신의 임신경험과 그에 따른 정보추구경험 과정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연구기관을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로 선택한 것은 다양한 임신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3개 기관으로 분산하여 선정한 이유는 한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연구장소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S대학교 부속 병원이었다. 이 병원이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이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병원으로서 서울의 서쪽에 있는 Y대학교 부속병원, 남쪽에 있는 C대학교 부속병원도 추가하여 순환적으로 방문하면서 참여자들을 면담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까지 면담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총 16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6세에서 39세 까지이며, 평균연령은 32세였다. 이중 초임부는 9명, 경임부는 7명이다. 면담초기의 임신주수는 16주에서 38주 까지이며, 평균 임신주수는 31주였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5명, 전문대학 졸업이 4명, 대학교 졸업이 6명, 대학원 졸업이 1명이다. 직업은 현재 전업주부가 10명, 나머지 6명은 취업주부로 직업은 교직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회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15명이 서울 거주자, 나머지 1명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이 개인의 경험을 구술하는 면담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시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로서 1차 면담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참여사례금 제공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동시에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와 협의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로 정하였다. 주로 병원의 한적한 로비, 외래대기실, 조용한 커피숍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4. 자료수집 및 면담과정

자료수집을 위해 현재 임신진행중인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임신의 맥락에서의 정보추구경험에 관해 비구조적, 회고적, 개방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초기 면담을 개방적, 비구조적인 연구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첫째, 근거이론은 양적연구와는 달리 연구변인이 식별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구성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가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변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과정을 자연스럽게 밝혀야 하므로 정보추구에 관한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차 면담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필요시 2-4주 후에 2차 면담이 수행되었다. 평균 면담시간은 43.9분이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면담 후에는 관찰내용을 현장기록노트에 기록하고,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면담완료 후 즉시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참여자가 구술한 언어 그대로 전부 옮겨 적고 코딩을 하였다. 면담자료의 수집은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때 까지 이루어졌다.

5. 자료분석 방법

근거이론의 자료분석은 다음의 3단계이다. 첫째, 주요사건들을 개념화하고 (개방코딩), 둘째, 범주들이 어떠한 인과관계와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축코딩), 셋째, 구축된 패러다임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론으로 정교화 하는 과정(선택코딩)이다.

선택코딩은 연구현상에 관한 모든 범주가 포함된 중심현상인 핵심범주를 결정하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²⁹⁾.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성과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어야 한다.

핵심범주의 통합, 정교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다임 모형을 문장으로 서술하는 '이야기 윤곽'을 전개한다. 둘째, 근거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심현상인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간의 가설적 상관관계진술을 통해 '가설적 관계 정형화' (핵심범주와 맥락적 조건) 및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제시한다.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

29) Strauss & Corbin, 1990, *op. cit.*, pp.116-144

주와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범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³⁰⁾으로 실제 면담자료를 대조하여 확인과정을 거친 이후 진술하였다. 즉, 유형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참여자별로 14개 범주와 3개 과정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각 범주와 범주별 차원을 상호비교함으로써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관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셋째, 이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보면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정보추구 행위의 ‘유형분석’을 하였다.

6. 연구평가

본 연구의 평가는 Lincoln & G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에 관한 평가기준인 진실성, 적용성, 일관성과 중립성을 준용하였다.³¹⁾

Ⅲ. 연구결과

1.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임신부들의 이러한 정보추구 경험의 관련 요인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최상으로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로 도출하였다.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는 ‘임신의 정상 상태 유지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신의 과정동안 임신부들이 의도적이고 일상적인 정보 추구경험을 통해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합맥락적이고 합리적으로 임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신부들은 임신의 과정 동안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별적 임신의 맥락에서 이들 획득된 정보의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임신진행 경험과 관련된 임신출산의 보편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이를 통합해 감으로써 비로소 임신에 대해 잘 모르거나 피상적 앎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임신의 전체 과정을 체험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임신 경험의 본질을 나름대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과정은 임신부가 정보추구 경험

30) *Ibid.* pp.129-130.

31) Yvonna S. Lincoln and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1985), pp.289-331.

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며, 성숙함과 현명함을 겸비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는 ‘이해하게 됨’과 ‘깨달아 감’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이해하게 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임신 진행 경험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보의 추구하고 획득을 통해 임신의 전체 과정을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깨달아 감’은 임신의 전체과정을 이해해 나가면서 참여자 개별 맥락에서의 임신 경험의 본질을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다.

핵심범주	속 성	차 원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이해하게 됨	정보를 많이 축적하다, 적게 축적하다
		자신의 경험을 많이 축적하다, 적게 축적하다
	깨달아 감	스스로 터득하다, 터득하지 못하다

〈그림 1〉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이해하게 됨’은 참여자들이 생경한 경험인 임신을 수행해 가면서 불안과 궁금증을 경험하지만, 다양한 정보 추구를 통해 자신의 임신 진행 경험에 보편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경험을 획득하여 더해감으로써 임신에 대해 잘 모름이나 피상적 앞에서 탈피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획득하고 지식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어 임신의 전체과정을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게 됨’의 구체적 차원은 자신의 경험 축적과 획득된 정보의 축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축적정도가 많아질수록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되었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해하게 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찾아보고 나면 안심이 된다. 이래서 그랬구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참여자 16).

“마음이 안정이 되요. 나보다 빠른 경험자의 경험 얘기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별거 아니구나. 편안함을 느끼게 되구요.” (참여자 13).

“인터넷에서 바로 물어 보거나 책을 찾아서 임신 증상 중에 이런 게 있나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아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그러면 안심이 좀 되구요, 괜찮겠구나.” (참여자 12).

‘깨달아 감’이란 임신부들이 정보추구 경험을 통해 임신과정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선(先) 이해를 바탕으로 임신의 개별적 맥락에 근거하여 임신경험의 공통성, 일반성, 보편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임신 경험의 개별적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다. 즉, 임신이라는 큰 틀에서 자신의 체험이 매우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고, 자신의 임신의 개별 징후나 증세, 진행의 과정이 고도의 특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신

의 보편 증세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터득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아 감’의 구체적 차원은 스스로 터득하다와 터득하지 못 하다 이다.

다음의 진술들은 개별적 맥락성에 근거하여 임신의 보편 맥락에서 임신 경험의 본질을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 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나만이 독특함이 아니고, 나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다 그렇구나, 전반적인 경우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안정이 된다는 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이 상황이나 내 몸의 상황을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아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자꾸 나 스스로 자꾸 깨우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안정이 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참여자 8).

2.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경험 유형

〈표 1〉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경험 유형

유형 패러다임	패러다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범주	속성	차원	필사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	체념적 추구형
인과 조건	임신의 수용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강함	약함
현상	임신의 정상 상태 유지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약함	약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맥락 조건	지각된 불안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적음	적음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일시적	일시적	지속적
	궁금증	정도	많음,적음	많음	많음	적음	적음
중재 조건	정보획득 방법인지	수준	높음,낮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정도	많음,적음	적음	적음	적음	적음
	자아조절	정도	강함,약함	약함	강함	강함	강함
	정보접근환경	수준	다양,단일	다양	다양	단일	단일
작용/ 상호작용 전략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표준지식 추구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약함	약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일시적
	경험담 추구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강함	약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약함	강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정보 추구 과정	비교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강함	약함
	맥락화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강함	약함	약함
	확인하기	정도	강함,약함	강함	약함	약함	강함
결과	충족	안도감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획득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획득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획득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획득
		지식확대					
		대처방안획득					
	불충족	불안 지속		불안지속 재시도 포기	재시도 포기	재시도 방치	포기 방치
		재시도					
		포기					
		방치					

가. 유형 1, ‘필사적 추구형’

‘필사적 추구형’ 참여자들(1, 5, 12, 13, 2, 3)은 ‘지각된 불안’이 많고, 지속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맥락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임신에 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임신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조절’이 약하여 ‘불안’에 자주 얽매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감정적, 필사적, 다각적으로 정보추구를 하였다. ‘비교하기’, ‘맥락화’, ‘확인하기’의 정도가 강한 정보추구과정을 통하여 ‘안도감’, ‘대처방안 획득’, ‘지식확대’의 비교적 강한 ‘충족’을 경험하였으나, 동시에 ‘불안 지속’, ‘재시도’, ‘포기’의 ‘불충족’의 정보추구도 경험함으로써 임신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통제감’을 필사적으로 향상하였다(표 1).

관련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임신을 한 경우도 많아, 강한 긍정으로 임신을 수용한다. 고대하던 임신이라 정상아와 남아에 관한 임신기대가 높고, 과거병력이 혹시라도 태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각된 불안이 많고 지속적이며, 대체로 임신에 관한 궁금증이 강하다. 따라서 임신에 따른 몸의 변화와 증세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집요하며 태아의 정상발육 여부에도 관심이 커서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강하고 지속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신에 관한 선행경험과 지식이 없어 초기에는 막막하기도 하고, 정보접근환경이 다양하나, 임신에 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임신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조절이 약하여 감정적이고 필사적이며 다각적으로 정보를 추구한다. 산전 진료데이터를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표준지식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주변인이나 임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몸의 증세나 대처방안, 태아의 상태에 관한 경험담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특히, 자아조절이 약하여 정서적 지지 추구는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정보 추구과정중 합리적인 정보수용을 위해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 과정이 모두 강하다. 적극적인 정보추구 후에 안도감을 강하게 느끼고, 대처 방안을 획득하며, 지식 확대에 충족한다. 그러나 때로는 해결지체나 해결미흡으로 불안이 지속되기도 하고,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시도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획득한 이후에는 덜 만족스럽지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면서 임신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능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필사적으로 향상시킨다.

‘필사적 추구형’에 관한 관련 요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저한테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식을 얻는 것인지는 생각 못하고 병원에 오면 이런 책자 같은 게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책자에 보면 산모들을 위한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책 같은 거. 그런 게 여기 안에 다 광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엄마들 경험 보고 아니면 각 병원 유명한 그런 병원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나의 몸 상황 같은 것,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의사들에게, 이제 인터넷 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나와 똑같은 입장의, 같은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몸의 이상이 있을 때라든가, 음식물을 섭취해도 이 음식물을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먹어도 되는지 이런 궁금한 거는 바로 병원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오니깐, 그렇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해소 안 되죠. 날 때까지 불안한 거죠. 낳고 나서 그 불안감 없어지죠. 병원에 와서 초음파해서 그 얘기 잘 있다 하면 잠시 그 불안감이 잠시 없어졌다가, 또다시 집에 가면 그 불안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잊어버리기 위해 밖에 나가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남편하구 외식을 한다든가 남편하구 자꾸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희 신랑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남편이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지요 같은 과는 아니더라도.” (참여자 5).

나. 유형 2, ‘적극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참여자들(11,15,8,14,16)은 ‘지각된 불안’은 많으나, 일시적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맥락에서 임신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신에 관한 자신감이나 임신에 관한 합리적인 전념으로 ‘자아조절’이 강하여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추구하였다. 강한 ‘비교하기’와 ‘맥락화하기’, 약한 ‘확인하기’의 정보추구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추구는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 획득’의 ‘충족’을 풍부하게 경험하였으나, 동시에 ‘재시도’와 ‘포기’의 ‘불충족’한 정보추구도 경험함으로써 임신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통제감’을 적극적으로 향상하였다(표 1).

관련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을 당연한 의무로 인지하였고, 고대하였지만, 막상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강한 긍정으로 임신을 수용한다. 임신은 생경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임신의 기대가 강하고, 임신의 진행 중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여 지각된 불안은 많으나 일시적이며, 대체로 임신에 관한 궁금증이 강하였다. 따라서 임신에 따른 몸의 변화와 증세와 징후, 그 원인과 대처방안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태아의 정상발육 여부에도 관심이 커서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강하고 지속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신에 관한 선행경험과 지식이 없어 초기에는 막막하였으나, 일상적인 정보추구의 선행경험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획득하는 등 정보획득방법의 인지수준이 높아 비교적 다양한 정보원을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막연한 불안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편한 마음을 갖거나, 임신에 관한 자신감이 있어 불안에 관한 자아조절이 좋은 편이다. 그리하여 산전 진단데이터를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산전 진료를 신뢰하며, 표준지식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주변인이나 임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몸의 증세나 대처방안, 태아의 상태에 대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경험담을 물어보며, 자아조절이 가능하기에 정서적 지지 추구는 약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정보 추구과정 중 합리적인 정보수용을 위해 비교하기와 맥락화하기 정도가 모두 강하며, 확인하기 과정은 비교적 약하다. 적극적인 정보추구 후에 안도감을 강하게 느끼고, 지식확대와 대처방안획득에 대단히 충족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시도를 추구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 획득한 이후에는 덜 만족스럽지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면서 임신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능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킨다.

유형 2, ‘적극적 추구형’ 관련 요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에서 주마다 어떤, 애기의 그 발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것을 섭취해야 된단거나, 필요한 영양분 같은가. 그런거, 내가 주의해야 될 거. 그런거, 주로 그런 정보를 많이 봤지요 거의 주마다 거의 체크하는 편이에요,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주로 몸의 이상이, 몸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주로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주로 시누이에게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좀 대처하는 편이에요.”

“저는 영원히 만족을 하지 못하죠. 궁금한 것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니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넘어가죠.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이겠구나 그냥 짐작하고 그 정도에서 그냥 미는 거지.” (참여자 11)

다. 유형 3, ‘무관심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 참여자들(6, 7)은 임신의 진행상태가 순조롭고 평탄하여 ‘지각된 불안’이 일시적이고 적은 낙관적인 맥락에서, 적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신에 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자아조절’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추구에 무관심하였다. ‘비교하기’ 과정은 강하였으나,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과정은 약한 정보추구 과정을 통하여 ‘안도감’, ‘대처방안 획득’, ‘지식확대’의 ‘충족’을 경험하였으나, 동시에 ‘재시도’와 ‘방치’의 ‘불충족’도 경험하여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향상하였다(표 1).

유형3의 ‘무관심 추구형’과 관련된 요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임신의 진행상태가 순조롭고 평탄하여 갑작스런 불안이나 궁금증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도는 약하고 일시적이다. 평소 생활습관이 건강했기 때문에 임신도 평탄할 것이고, 임신에 관한 막연한 불안은 존재하지만 당연히 자신의 임신은 정상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임신에 관한 낙관적 확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보추구에 무관심하다. 산전진료를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여, 산전 진단데이터를 강하고 일시적

으로 추구하며, 표준지식은 약하고 일시적으로 추구하며, 경험담은 강하고 일시적으로 추구한다. 정보 추구과정중 합리적인 정보수용을 위해 비교하기는 강하나,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과정은 약하다. 정보추구 후에 안도감을 느끼고, 대처방안을 획득하며, 지식확대에 충족한다. 그러나 때로는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시도를 추구하기도 하며,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신의 정보요구를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도 하면서 임신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소극적이고 무관심하게 향상시킨다.

유형3의 '무관심 추구형'에 관한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가 만일 특별히 뭐 술 담배 안 하니 괜찮을 거야 뭐 그런 식이죠. 약물복용이나 모르고 감기약이나 술, 담배 했으면 불안해서라도 검사, 양수검사도 있구. 뭐 그런 검사가 있더라구요. 예는 정상이야 뭐 걱정 없어”
 “임신과 출산하고 나서도 잘 몰라요. 젓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몰라요. 그런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위주고 산전요가도 많이 하는 데 모두 낮에만 모두 하니까. 놓게 되면 낳는 거. 그 정도라더라고요.” (참여자6).

라. 유형 4, '체념적 추구형'

'체념적 추구형' 참여자들(10, 9, 4)은 임신의 진행상태가 순조롭지 못한 일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지각된 불안'은 적었다. 지속적인 불안정적인 맥락에서도 적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신에 몰입하지 않으려는 '자아조절'이 강하였으며, '비교하기'가 약하고 '맥락화하기'가 약하며, '확인하기'가 강한 정보추구과정을 통하여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정보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안도감', '대처방안획득', '지식확대'의 '충족'을 경험하였으나, 동시에 '포기'와 '방치'의 '불충족'을 경험하여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낮은 수준으로 향상하였다(표 1).

관련된 요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신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소극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다. 임신의 진행상태가 여의치 못한 일면도 있어 불안이 지속적이거나, 그 불안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하며, 대체로 임신에 관한 궁금증도 약하다.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도는 약하나 지속적이다. 불안한 상태에 몰입하지 않기 위해 종교에 강하게 의지하거나 직장이나 학업에 몰입하여 정보추구는 대체로 수동적이고 체념적이다. 불안한 맥락이라 산전 진단데이터를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표준지식을 약하고 일시적으로 추구하며, 경험담은 약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정서적 지지는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정보추구 과정중 비교하기와 맥락화하기는 약하나, 확인하기는 강하다. 정보의 획득으로, 안심하거나, 대처방안도 획득하며 지식확대가 이루어지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신의 정보추구를 그냥 내 버려두어 방치하거나, 정보추구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소극적으로 향상시킨다.

유형4의 '체념적 추구형'관련 사례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성 당뇨는 아이가 거대아가 되든지, 양수가 많다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8개월 쯤 나타나 가지고 그때는 실제 그 사형선고 받는 기분이었는데……. 중략……. 의사선생님이 양수가 많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양수는 많지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중략……. 주변에서 겁을 많이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 들여 들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게 되고”

“신뢰하는 정보라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마다 저희는 기도를 하구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천사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 분들, 천사 역할을 하는 주위 분들을 붙여주는데, 거기에 딱 맞게,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대처를 잘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10).

IV. 논의

1.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유형 논의

임신부들이 임신의 정보추구맥락에서 직면하는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현상을 중심으로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과정을 설명하는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의 정보추구 유형은 4가지로 도출하였다. 각 유형은 정보추구의 패러다임의 인과 조건, 현상, 맥락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와 정보추구 과정을 통합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여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지각한 안정적 맥락 혹은 불안정적 맥락의 두 가지 맥락이 식별되었고, 이에 따른 적극과 소극의 두 가지 정보추구행위 유형이 도출되어 4가지 행위유형을 도출하였다.

첫번째, ‘필사적 추구형’은 ‘불안’에 의해 궁금증이 유발되는 경향이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필사적으로 추구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추구해 나가면서도 ‘자아조절’이 약해서 오는 ‘불안’의 지속으로 친밀한 주변인물에 대한 정서적 의존인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색이 있다. 성공적 임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추구 전략을 필사적으로 취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 유형은 ‘불안’을 외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쉴 새 없이 동의(정보)를 구하는 유형이다. 또 하나의 유형은 ‘불안’을 의연하게 내면화하는 유형으로,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정보를 추구하였다.

‘필사적 추구형’은 선행 연구 중에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모니터링형³²⁾과 유사하다. 또한 광범위한 관심과 많은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원로부터 활발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과잉자³³⁾와 유사하다.

두번째, ‘적극적 추구형’은 비교적 전반적으로 안정된 맥락이지만 참여자들은 우세한 ‘궁금증’을 가지고 임신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알아가고자 한다. 정보추구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보추구 결과에 대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충족한다.

세번째, ‘무관심 추구형’은 상황자체를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다. 임신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를 덜 추구하였으며, 자신의 일상적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 임신의 과정을 수행하는 경향도 있었다.

네번째, ‘체념적 추구형’은 불안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보요구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방치하는 경향이며, 정보추구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유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기 보다는 정보의 대안으로서 종교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 종교적 공동체에 있는 주변인물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문자의 해독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구축된 공개적이고 성문화된 정보를 이용하기 보다는 구두정보 혹은 인간 정보원에 대한 의존이 강하였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변인물에 의존하여 기생(寄生)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부류이다. 정보 찾기를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냥 주어진 상황을 내버려 두면 시간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방임’의 자세를 취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체념적 추구형’은 첫번째 유형인 ‘필사적 추구형’과 상반되는 경향이다. 스트레스상황에서 정보를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둔감형(Blunting)³⁴⁾과 유사하다. 또한 공식정보원에서 좀처럼 정보를 찾지 않으며, 자신의 지식과 정보자원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식과 자원에 의존하는 ‘정보사다리형’, 정보탐색과 정보조직의 시스템이 없으며 정보이용이나 요구도 없으며 정보에 직면하게 되면, 압도당하거나 포기하는 ‘정보 태만자³⁵⁾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은 암에 대한 근접성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정보를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³⁶⁾와도 유사하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문제 지향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정서 지향적으로 극복’하는 것³⁷⁾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나 위기에 처했다고 지각한다면, 사람들은 정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종교적 위안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체념적 정보추구’유형을 살펴보면

32) Suzanne M. Miller, "Monitoring and Blunting: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1987), pp.345-353.

33) Judith Palmer, "Scientists and Information: I. Using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Information Styl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7, No.2(1991), pp.105-129.

34) Miller, *op. cit.*

35) Palmer, *op. cit.*

36) Lesley Degner and Jeffrey Sloan, "Decision Making During Serious Illness: What Role Do Patients Really Want to Pla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45, No.9(1992), pp.941-950.

37) Florence J. Van Zuuren and Heleen M. Wolf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Personal and Situational Aspects of Monitoring and Blun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12, No.2(1991), pp. 141-149.

면, 임신의 맥락에서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평소 이 유형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반영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형의 체념적 행위는 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mastery of life)³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할 부분은, 적극적인 정보추구 유형 (1, 2유형)일수록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의심스러워 '재시도'를 시도하거나 획득한 현재의 정보에 불만족하지만 필요하고 편한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정보추구하기를 중간에 체념하여'포기'의 불충족함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인 정보추구 유형 (유형3, 4)일수록 정보추구의 결과가 불충분하여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신의 정보요구 자체를 무시(無視)하거나, 정보추구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치(放置)'의 불충족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적극적 정보추구일수록 정보추구 경험을 통해 임신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2.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논의

임신맥락에서의 정보추구는 임신이라는 하나의 건강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의 추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임신부의 정보추구란 40주 동안의 임신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임신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획득을 통해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추구는 캐나다 쌍생아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연구³⁹⁾에서 언급된 바대로 '어머니 되어 감을'준비'하는 중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건강정보의 추구는 '변화', '불확실성', '무력감', '위기'를 인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메커니즘 또는 건강관련 이벤트에 대한 통제를 얻기 위한 메카니즘,⁴⁰⁾ '자아효능감'⁴¹⁾ 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경험은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과정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정보추구 과정에서 획득정보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임신부들이 인지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태도변용을 통하여 임신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처능력을 향상해 가는 것이다.

38) Reijo Savolainen,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7(1995), pp.259-294.

39) Mckenzie, *op. cit.*, p.21.

40) Elizabeth R. Lenz, "Information Seeking: A Component of Client Decisions and Health Behavio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6, No.3(1985), p.59.

41) David J. Johnson and Hendrika Meischke, "Women's Preferences for Cancer Information from Specific Communication Chann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34, No.6(2001), pp.742-755.

참여자들은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라는 정보추구 현상에 반응, 대처, 조절하기 위해 ‘산전 진단테 이타 추구하기’,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의 작용/상호작용적 정보추구전략을 의도적으로 취하였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추구의 하위과정들은 획득한 정보와의 상호작용적 정보처리 과정으로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추구 경험은 ‘인지의 변화’⁴²⁾⁴³⁾⁴⁴⁾를 경험하는 것이며, 새로운 지식을 유입하는 활발한 학습의 과정이며, 정보추구자에게 제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정보추구 결과는 ‘지식확대’와 ‘대처방안 획득’의 인지적 변화로 나타났으며, ‘안도감’, ‘불안 지속’이라는 정서적 변화, ‘재시도’, ‘포기’, ‘방치’의 행동적 변화도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임신부들의 이러한 정보추구의 전체 경험과정은 정보추구를 통해 임신 맥락에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용하여 임신의 경험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임신초기의 무지함, 잘 알지 못함, 피상적 앎, 막막함에서 오는 ‘불안과 ‘궁금증’의 맥락에서 서서히 탈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추구는 임신부들에게 임신의 과정을 이해하고 임신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며, 적절한 지식과 경험 획득을 통해 자신의 개별적 임신맥락에 알맞은 합리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임신상황에 대한 자아 통제감을 향상해 나아가는 것이다.

3. 선행 정보추구 모형과의 비교 분석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가설적 관계에서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은 ‘상징적 상호작용’⁴⁵⁾을 근간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사회와 자아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에서 적극적 의미 생성과 해석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구축하는 행동 유기체로 본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rvin,⁴⁶⁾ Kuhlthau,⁴⁷⁾ Mckenzie⁴⁸⁾의 연구들과 인간 이해의 입장을 공유한다.

42) Carol Collier Kuhlthau,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 No.5(1991), pp.361-371.

43) Carol Collier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Norwood, NJ: Ablex Publishing, 1993).

44) C. Kuhlthau,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 4(1993), pp.339-355.

45)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46) Brenda Dervin, 1983,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to Date."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Dallas, Texas, USA, May 1983. [cited 2001. 08. 13].

47) Carol Collier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Norwood,

가. Dervin 모형

Dervin⁴⁹⁾의 상황, 격차, 이용의 ‘의미생성모형’은 질적 연구의 큰 맥락에서 본다면 정보추구 관련 상황에서 하나의 구조화된 면담기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정보추구의 상황 설명에 관한 과정들을 도출하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신부의 정보추구 현상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도출하고 그 관계성을 식별하며, 시간변화에 따른 과정의 변화까지를 제공하며, 또한 이들 정보추구의 구성요인 (패러다임적 구성요소들)과 추구과정의 가설적 관계를 통합함으로써 정보추구행위의 패턴을 도출하는 실체이론의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근거이론을 적용한 본 연구는 ‘의미생성모형’이 밝히고자 하는 정보추구의 과정뿐 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연구현상과 관련된 총체적인 설명력을 가진 영향요인과 추구 과정의 통합적인 행위 패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의미생성모형’의 구조화된 면담기법으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개념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점이 될 수 있으며, 자료수집시 소수의 개념 도출과 빠른 데이터 포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의미생성모형’의 면담기법은 본 연구의 면담 설계 시 질문을 구성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나. Miller 유형

Miller⁵⁰⁾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성의 타입에 따른 정보추구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활발히 추구하는 ‘모니터링형’과 정보회피의 ‘둔감형’을 식별하였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내적요인에 따라 정보추구행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 모형에서도 불안정한 맥락, 즉 임신의 스트레스 맥락에서 ‘필사적 추구형’과 ‘चे념적 추구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유발해내는 것은 불안을 지각하는 개별적 차이와 자아조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Ellis류 모형

Ellis류 연구⁵¹⁾⁵²⁾⁵³⁾⁵⁴⁾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과제 맥락에서의 정보추구의 특성적인 활동들

NJ: Ablex Publishing, 1993) *op. cit.*

48) Mckenzie, *op. cit.*

49) Dervin, *op. cit.*

50) Miller, *op. cit.*

51) David Ellis, "A Behavio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5, No.3(1989), pp.171-212.

52) David Ellis, "Mode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Academic Researchers: a Grounded Theory Approach," *Library Quarterly*, Vol.63, No.4(1993), pp.469-486.

에 관한 행위 범주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범주가 정보추구의 과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정보추구의 관련 범주의 식별뿐 아니라, 범주간의 관계식별과 정보추구과정의 통합을 통해 가설적 관계 내에서 정보추구 행위의 공통된 행위 유형을 밝혀내었다.

라. Palmer 모형

Palmer⁵⁵⁾는 과학자의 연구맥락에서 통계분석과 질적 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정보스타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지각한 안정적 맥락 혹은 불안정적 맥락 의 2가지 맥락이 식별되었고, 이에 따른 적극과 소극의 두 가지 정보추구행위 유형이 도출되어 ‘필사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 ‘체념적 추구형’의 4가지 정보추구행위 유형이 도출되었다. 특히 Palmer의 정보추구의 노력정도 등에 따른 질적 분석에서 도출된 유형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필사적 추구형’은 ‘정보과잉자’, ‘체념적 추구형’은 ‘정보사다리형’, ‘정보태만자’와 유사하다.

마. Kuhlthau 모형

Kuhlthau⁵⁶⁾ 모형의 강점은 이용자는 정보추구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이고,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적 변화로 지식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임신에 관한 합맥락적, 합리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임신의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의 본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

바. Johnson 모형

Johnson⁵⁷⁾의 ‘건강정보추구의 망라적 모형(CMIS)’은 건강정보추구를 구성하는 일반적 요인을 제시하여 건강정보추구에 관한 간략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 양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이기 때문에, 건강정보추구의 구체적인 맥락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지는 못한 경향이 있다. 건강정보서비스의 실제에서는 보다 구체적 정보추구 맥락성과 추구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의 모형이 실제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3) David Ellis, Debora Cox, and Katherine Hall,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1993), pp.356-369.

54) David Ellis and Haugan, "Mode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Engineers and Research Scientist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3, No.4(1997), pp.384-403.

55) Judith Palmer, "Scientists and Information: I. Using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Information Styl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7, No.2(1991), pp.105-129.

56) Carol Collier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Norwood, NJ: Ablex Publishing, 1993) *op. cit.*

57) David J. Johnson,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Cresskill, NJ: Hampton Press, 1997).

사. McKenzie 모형

Mckenzie⁵⁸⁾는 쌍생아를 가진 캐나다 임신여성들의 정보추구 실제의 이원적인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모형은 임신의 고유맥락을 반영한 임신맥락 지향적 모형이기 보다는 보다 정보추구의 일반성을 지향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임신부를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인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과정에 대한 이해는 임신부의 활발한 정보추구가 임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학습의 과정으로서, 중국에는 좋은 어머니되기 기여하는 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에 요구되는 정보서비스 개발 방안으로서 정보 문해교육과 임신부를 위한 정보서비스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가. 정보문해교육(information literacy)

임신부들은 임신의 수용과 더불어 임신정보의 획득에 대해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하며, 임신의 진행과정에서는 획득한 정보에 대해 어떠한 정보가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인지를 끊임없이 고심하고, 또 나름의 잣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수용하게 된다. 임신부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정보접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문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문해교육은 임신부 이전에 사회구성원 일반으로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원에 접근하고, 양질의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의 맥락에서 임신·출산·육아 관련 양질의 정보원과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상의 건강정보도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나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이나 영리기관의 임신·출산·육아의 교육의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임신부들의 정보활용에 관한 정보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임신부를 위한 정보서비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 과정 및 정보추구행위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신부들을 위한 사회적 정보자원의 구축, 정보서비스에 인식 변화 및 임신부의 고유한 특성을

58) Mckenzie, *op. cit.*

반영한 정보서비스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인 임신부의 정보추구과정에서의 일련의 과정들인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는 정보를 추구하는 임신부들이 어떤 과정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정보서비스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정보추구의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과정과 관련하여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선별 및 평가 방법,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의 배양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보추구행위의 ‘필사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무관심추구형’, ‘체념적 추구형’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중재전략들을 모색해야 한다.

5. 연구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 생산, 정보추구연구와 정보추구 이론생산, 문헌정보학의 교육, 문헌정보학 실무의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생산 측면에서 검토하면,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실체이론의 개발은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이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후속 연구에 방법론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둘째, 정보추구연구와 정보추구 이론생산 측면에서는 정보원과 정보채널의 선호도를 밝히는 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정보추구 경험과 관련된 정보추구의 영향요인, 정보추구 과정, 정보추구 행위 유형에 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교육측면에서, 근거 이론방법의 적용은 현행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질적 연구의 성장기에 있는 한국문헌정보학계 질적 연구분야에 방법론적 심화 확대의 계기를 제공한다. 넷째, 문헌정보학 실무 측면에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의 경험과정과 유형, 상황모형을 통해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심층적 이해 제공과 특성을 반영한 건강 정보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구성원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으로서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자들의 인식 확대에 기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상의 건강정보 추구 맥락에서 40주간의 성공적인 임신 수행이라는 건강 정보 과제를 가진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추구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개념 및 이들 개념들 간의 관계 구명을 통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구조와 정보추구 과정, 정보추구행위의 유형들을 밝혀내어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를 설명하는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 실체이론을 개발하였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상의 건강정보 추구 맥락에서 임신부들의 임신과제 관련 정보추구에 관한 연구이다. 다양한 건강 맥락에서의 정보의 역할과 의미, 건강정보의 추구 행태를 문헌정보학의 연구 관심사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간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 증진과 건강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의 실무 증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맥락적 독특성을 반영한 건강 정보 추구 행위들을 문헌정보학적 접근 또는 관련분야와의 학제간 접근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분야가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정보추구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과 관련된 제 범주들과 그 관계성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 범주들을 다른 건강정보추구 맥락에서 적용 가능하고, 일반화가 가능한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임신 정보추구 맥락에서 밝혀진 '지각된 불안', '궁금증'(맥락조건), '정보획득방법 인지', '선행 지식', '자아 조절', '정보접근 환경'(중재조건),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작용/상호작용적 정보추구전략, 정보 유형),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정보추구 과정)가 만성질환이나 암질환 같은 다른 구체적인 건강정보의 추구 맥락에서도 일반화 가능한 유용한 개념으로서 그 설명력이 있는가 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에 관한 실체이론인 '임신에 대한 자아통제감 향상하기'에서 밝혀진 4가지 정보추구행태 유형('필사적 추구형', '적극적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 '체념적 추구형')이 다른 건강정보 추구 맥락에서 건강정보 추구자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건강정보추구 맥락에서의 다양한 연구접근과 그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다양한 맥락에서의 건강정보추구 행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강정보추구에 관한 공식이론(formal theory)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임신부의 다양한 정보요구도 밝혀졌다. 정보추구경험 과정과 유형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각 정보추구 과정별 그리고 각 추구 경험 유형별 정보추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중재와 구체적인 개별 정보서비스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정보추구의 구조와 과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 (2006. 3), pp.13-37.
- 김갑선. “임신부의 정보추구 과정.” *질적연구*, 제7권, 2호(2006. 12), pp.27-40.
- Aaronson, Lauren S., Carol Macnee Mural, Susan K. Pfoutz, “Seeking Information: Where Do Pregnant Women Go?.”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15, No.3(September 1988), pp.335-345.
- Atuyambea, Lynn. et al., “Seeking Safety and Empathy: Adolescent Health Seeking Behavior During Pregnancy and Early Motherhood in Central Uganda.”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No.4(August 2009), pp.781-796.
- Blumer, Herbert.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Clarke, Penny E. and Harriet Gross, “Women’s Behaviour, Beliefs and Information Sources about Physical Exercise in Pregnancy.” *Midwifery*, Vol.20, No.2(June 2004), pp.133-141.
- Corbin, Juliet. M. “Women’s Perceptions and Management of a Pregnancy Complicated by Chronic Illness.” *Health Care of Women International*, Vol.8(1987), pp.317-337.
- Davies, Myfanwy M. and Peter A. Bath. “Interpersonal Sources of Health and Maternity Information for Somali Women Living in The UK.”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8, No.3(2002), pp.302-318.
- Degner, Lesley and Jeffrey Sloan. “Decision Making During Serious Illness: What Role Do Patients Really Want to Pla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45, No.9(1992), pp.941-950.
- Dervin, Brenda.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to Date.”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Dallas, Texas, USA, May 1983.
 <<http://communication.sbs.ohio-state.edu/sense-making/art/artdervin83.html>> [cited 2001. 8. 13]
- Ellis, David. “A Behavio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5, No.3(1989), pp.171-212.
- Ellis, David. “Mode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Academic Researchers: a Grounded Theory Approach.” *Library Quarterly*, Vol.63, No.4(1993), pp.469-486.
- Ellis, David, Debora Cox, and Katherine Hall.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1993), pp.356-369.
- Ellis, David, and Haugan. “Mode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Engineers and

- Research Scientist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3, No.4(1997), pp.384-403.
- Garnweidner, Lisa, Kjell Sverre Pettersen and Annhild Mosdol. “Experiences With Nutrition-Related Information During Antenatal Care of Pregnant Women of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Residing in the Area of Oslo, Norway.” *Midwifery, in Press*(2013).
- Gao, Ling-ling, Margareta Larsson and Shu-yuan Luo. “Internet Use by Chinese Women Seeking Pregnancy-Related Information.” *Midwifery*, Vol.29, No.7(July 2013), pp.730-735.
- Haig, Brian. Grounded Theory as Scientific Method. *Philosophy of Education*, 1995.
<http://www.ed.uiuc.edu/EPS/PES-Yearbook/95_docs/haig.html> [cited 2002. 10. 2].
- Jacoby, A. “Mothers’ Views about Information and Advice in Pregnancy and Childbirth: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Midwifery*, Vol.4(1988), pp.103-110.
- Johnson, David J.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Cresskill, NJ: Hampton Press, 1997.
- Kuhlthau, Carol Collier.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 No.5(1991), pp.361-371.
- Kuhlthau, Carol Collier.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1993.
- Kuhlthau, C.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1993), pp.339-355.
- Larsson, Margareta, et al., “A Descriptive Study of the Use of the Internet by Women Seeking Pregnancy-Related Information.” *Midwifery*, Vol.25, No.1(Feb.2009), pp.14-20.
- Lagan, Briege, Marlene Sinclair and W. George Kernohan. “Pregnant Women’s Use of the Internet: a Review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Evidence.” *Evidence Based Midwifery*, Vol.4, No.1(2006), pp.17-23.
- Lenz, Elizabeth R. “Information Seeking: a Component of Client Decisions and Health Behavio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6, No.3(1985), pp.59-72.
- Levy, Valerie. “Maintaining Equilibrium: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Processes Involved when Women Make Informed Choices During Pregnancy.” *Midwifery*, Vol.15(1999), pp.109-119.
- Lewallen, Lynne Porter. “Healthy Behaviors and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Among Low-Income Pregnant Women.” *Public Health Nursing*, Vol.21, No.3(May/June

- 2004), pp.200-206.
- Lincoln, Yvonna S. and Guba, Egon 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1985, pp.289-331.
- Mckenzie, Pamela J.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9, No.1(2003), pp.19-40.
- Miller, Suzanne M. "Interacting Effects of Information and Coping Style in Adapting to Gynecologic Stress: Should the Doctors Tell 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1983), pp.223-236.
- Miller, Suzanne M. "Monitoring and Blunting: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1987), pp.345-353.
- Mills, Moyra E. and Robin Davidson. "Cancer Patients' Sources of Information: Use and Quality Issues." *Psycho-Oncology*, Vol.11(2002), pp.371-378.
- Palmer, Judith. "Scientists and Information: I. Using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Information Styl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7, No.2(1991), pp.105-129.
- Savolainen, Reijo.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7(1995), pp.259-294.
- Shieh, Carol, Anna McDaniel and Irene Ke. "Information - Seeking and its Predictors in Low-Income Pregnant Women."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Vol.54, No.5(Sept.-Oct. 2009), pp.364-372.
- Shieh, Carol, Marion E. Broome and Timothy E. Stump.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Information-Seeking in Low-Income Pregnant Women." *Women & Health*, Vol.50, No.5(2010), pp.426-442.
- Shieh, Carol et al., "Health Literacy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and With Barriers to Information Seeking in Clinic-Based Pregnant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30, No.11(2009), pp.971-988.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1990.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Newbury Park, Calif. : Sage, 1998.
- Szwajcer, E. M. et al., "Nutrition-Related Information-Seeking Behaviours Before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Pregnancy: Consequences for Nutrition C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Vol.59, Suppl.1(2005), pp.S57 - S65.

Szwajcera, Ellen M. et al., “Nutrition-Related Information-Seeking Behaviours of Women Trying to Conceive and Pregnant Women: Evidence for the Life Course Perspective.” *Family Practice*, Vol.25, Suppl.1(2008), pp.i99-i104.

Zuuren, Florence J. Van and Heleen M. Wolf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Personal and Situational Aspects of Monitoring and Blun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12, No.2(1991), pp.141-14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Kapseon. “Pregnant Women’s Information Seeking Process: Structure and Process of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0, No.1(2006. 3), pp.13-37.

Kim, Kapseon. “Information Seeking Process of Pregnant Women’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7, No.2(2006. 12), pp.27-40.

Kim, Shinjeong. et al., *Maternal Nursing*. Seoul: Chungdam, 1996.